전통적 의미를 넘어선, 보건관리자의 새로운 역할

보령엘엔지터미널㈜ | 나양우 보건관리자

글 임선숙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

모든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보건관리자의 역할 또한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금 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보건관리자.
나양우 보건관리자가 말하는 새로운 보건관리자의 역할이다.

기업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

보령엘엔지터미널㈜은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LNG 인수기지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나양우 보건관리자는 이곳의 SHE팀에 몸담고 있다. SHE팀은 Safety(안전)와 Healthy(건강), Environment(환경)의 줄임말로,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작업환경과 친환경을 위한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양우 보건관리자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더불어 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이슈에도 늘 주의를 기울인다. 가스제조시설인 만큼 노동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슈의 중심이다. 사전 환기시스템과 가스감지기를 설치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수칙도 교육한다.

“환경과 안전, 건강 등 국내 및 국제적인 규정과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꾸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인데요. 이를 위해 각팀과 협업하여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존재에 대비하는 자세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듯, 철저한 준비와 예방에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발생한 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여기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처로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양우 보건관리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두었다. 또한, 단순 교육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직원들과 함께 실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구성원 모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본인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기에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는 ‘예방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죠. 회사와 직원들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를 막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저의 큰 원동력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보건관리자로서

나양우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건강은 곧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SHE팀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 보건관리 영역을 넘어 친환경 활동을 계획하고, ESG 경영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앞장선다. 이처럼 보건관리 영역은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역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래도 아직 일부 기업에서는 보건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직원들과 경영진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양우 보건관리자 역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관리에 대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처법을 연구하는 것. 이를 통해 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경영을 고려한 보건관리 방안도 꾸준히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보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은 계속 강화하고, 다른 보건관리자에게 배울 건 배우면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이뤄나가겠습니다."